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간의 의성어, 의태어 연상 내용 비교 연구

이 지 은

Abstract

Lee Jieun. 2016. 9. 30. **A Comparative study on Word Association between NS and NNS : based on the Korean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Bilingual Research* 64, 157-186. Development of phonetic and symbolic words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vocabulary. Even if removed, these words do not change the meaning of the sentence itself. However,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allow a better grasp of the atmosphere of an utterance situation, a speaker's attitude, etc. With the sense of presence and depiction, the situation becomes more imaginable. Such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are collocational because of co-occurrence restrictions. This is why people can think of the same or similar words when hearing such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how native and non-native Korean speakers associate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In a study with advanced Korean language learners who are studying for master's degrees related to Korean language, have shown that they recorded lower levels of word association. They also failed to accurately guess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in the titles of newspaper article and the contents. In spite of the difficulties, in a survey they answered they had few opportunities to understand Korean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Ewha Womans University**)

【Key words】 의성어(Onomatopoeic words), 의태어(Mimetic words), 상징어(symbolic words), 어휘 연상(word association), 자극어(stimulus word), 연상어(associative word), 연어(collocation)

1. 서론

한국어 어휘의 특징 중 하나로 음성 상징어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한국인 특유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배현숙, 2006, p. 98). 문장에서 의성어, 의태어가 제거되어도 문장 자체의 의미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함으로써 발화 상황과 분위기, 화자의 태도 등을 파악하고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의성어, 의태어의 사용이 해당 문장과 그 담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현장성과 묘사력을 더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수가 걷는다.”만 들었을 때와 “영수가 성큼성큼/살금살금/아장아장/비틀비틀 걷는다.”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영수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성큼성큼’ 걷는 영수는 씩씩하고 힘찬 남성의 모습일 것이고, ‘살금살금’ 걷는 영수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조심하여 조용히 걷는 모습일 것이고, ‘아장아장’ 걷는 영수는 귀여운 아가의 모습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틀비틀 걷는 영수는 어지러운 상태이거나 술에 취한 모습일 것이다. 이처럼 ‘걷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의태어에 따라 영수는 어린아이가 될 수도 술에 취한 남성이 될 수도 있으며, 사람들은 문장을 들음과 동시에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 간에 의성어, 의태어 연상 내용은 어떻게 달라질까? 의성어, 의태어는 공기제약이 심하므로 의성어, 의태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휘에도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특정 의성어, 의태어를 접했을 때 떠오르는 사물이나 사람의 모습, 상태, 상황 등 머릿속에 연상되는 내용이 비슷할 것이다. Fitzpatrick(2007)에서는 단어 연상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L1 화자와 L2 화자의 연상에는 차이가 없을 가정하고 있으며, 단어 연상 실험을 통해 학습자의 L1과 L2의 반응 사이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Fitzpatrick and Munby(2014)는 숙달도가 높을수록 모국어 화자의 연상과 비슷해진다는

가정을 하고 어휘 연상 테스트의 제2언어 숙달도 평가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의성어, 의태어의 경우에는 의성어, 의태어가 가지는 공기 제약과 묘사력, 현장성으로 인해 모국어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 사이의 연상이 비슷해야 하는 특징을 지닌다. 결론적으로 비모국어 화자가 의성어, 의태어를 제대로 습득했다면 모국어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 간의 연상 내용이 비슷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는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의성어, 의태어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최종 목표와도 같을 것이다.¹⁾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의성어, 의태어 교육을 위한 기초 조사로서 의성어, 의태어에 대한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 간의 연상 내용과 이해 정도를 비교·분석하고, 앞으로의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서의 의성어, 의태어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하는 데 있다.

1) 예컨대 ‘청바지’라는 어휘를 보고 연상 할 경우 청바지의 유래를 아는 사람이라면 ‘군대 천막’, ‘광부’ 등을 연상할 것이고,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이요 자유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자유’를 연상할 것이다. 한국에서 60-70년대를 보낸 사람이라면 청바지는 ‘부(富)’ 혹은 당시 청바지를 입을 수 있었던 친구의 이름을 떠올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같은 문화의 모국어 화자라고 하더라도 세대가 다르면 같은 어휘에 다른 연상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의성어, 의태어의 경우에는 해당 언어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모국어, 문화, 세대 등의 변인에 관계없이 비슷한 맥락의 어휘를 연상하게 될 것이다.

2. 선행 연구

2.1. 의성어, 의태어²⁾ 연구

의성어, 의태어는 그 앞뒤에 매우 제한적인 어휘만 놓일 수 있어 공기관계의 제약이 심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어 교육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의 ‘어울림 정보’, ‘공기 제약’ 등의 연구 주제로 다루져 왔다³⁾. 그간의 관련 연구들을 보면 공기 관계에 있는 주어와 서술어를 제시하는 연구(우인혜; 1990, 손남익; 1998)에서 시작하여 이를 통계 분석한 연구(서상규, 1995), 말뭉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구(김홍범; 1995, 조창규; 2003)로 발전해

-
- 2) 의성어, 의태어를 나타내는 말로 시늉말, 상징어, 소리 흉내어 등 많은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의성어(擬聲語), 의태어(擬態語)라는 어휘 자체의 한자 의미를 살펴보면 ‘비교하다, 견주다, 본뜨다, 흉내 내다, 모방하다’의 의미를 지닌 한자 ‘비길 의(擬)’를 사용하여 의성어는 ‘소리를 본뜬, 흉내 낸, 모방한 언어’가 되고 의태어는 ‘모습이나 모양을 본뜬, 흉내 낸, 모방한 언어’가 된다. 비록 채완(2003)에서 ‘본뜨다, 흉내, 시늉, 모방’ 등의 어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한자의 의미를 본다면 굳이 의성어, 의태어를 흉내말이나 시늉말이니 상징어니 하는 다른 어휘로 대신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윤희원(1993)은 ‘의성어란 비분절음을 분절음으로 나타냄으로써 만들어진 낱말’이며, ‘의태어란 시각 영상을 청각 영상으로, 그리고 그 청각 영상을 분절음으로 바꾸어 나타냄으로써 만들어진 낱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성어, 의태어의 개념과 범주 설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삐약거리다, 펄럭이다...’류의 접미 파생어를 의성어, 의태어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그 정의 또한 달라질 것임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접미 파생어를 제외한 ‘삐약삐약, 펄럭펄럭...’류로 제한할 경우 의성어, 의태어의 정의는 ‘자연의 소리나 대상의 모습을 해당하는 언어의 분절음으로 나타냄으로써 만들어진 낱말’이라 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에 대한 윤희원(1993)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 3) 한국어 교육에서의 의성어, 의태어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는데, 크게 다른 언어와 비교한 대조 연구, 의성어, 의태어 교육 목록을 제시한 연구, 의성어, 의태어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의 결합 관계와 특징 등 연상에 영향을 주는 국어학적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왔다. 그리고 이어 의성어, 의태어의 공기 관계를 연어(collocation) 개념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안인숙; 2008, 박영수; 2009)이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그동안의 연어 결합 관계 연구들이 생성문법의 영향에 따라 서술어를 중심으로 이와 결합 가능한 논항들(argument)의 의미적, 문법적 범주를 분석한 것과 달리 의성어, 의태어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의 논항으로 서술어를 선택하여 문장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를 연어 개념으로 접근하여 연어적 공기 관계를 살피고 있다. 박영수(2009)는 상징부사의 쓰임에 의해 서술어가 결정된다는 의미의 연어적 공기성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서술어의 논항으로 다른 문장성분을 선택하여 문장을 이룬다는 기존의 개념과 상반된 개념이다. 박영수(2009)는 이러한 연어적 공기성으로 인해 상징부사는 대부분 서술어를 스스로 선택하는 공기성을 보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o)’, ‘다리를 절레절레 흔든다(x)’와 같이 체언도 선택하여 문장을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어 관계에 대해 안인숙(2008)은 의성어, 의태어를 연어핵으로 보고, 체언이 되는 상징 대상과 연어변으로서의 서술어를 설명하고 있다⁴⁾. 따라서 ‘개가 멍멍 짖는다’와 같이 2개의 논항이 요구되는 경우도 ‘멍멍’을 연어핵으로 보고, 체언인 ‘개’와 용언인 ‘짖는다’를 연어변으로 취한다고 보았다⁵⁾.

의성어, 의태어는 섬세한 의미 전달 기능과 간결성, 함축적 형식상의 장점으로 인해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도 많이 쓰인다. 이에 신문 제목에 나타나는 의성어, 의태어가 다른 단어들과 맺는 관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연구들(김홍범, 박동근; 2001, 조혜민; 2012)이 있다.

4) 연어 관계에 대해 임홍빈(2001)의 개념을 따르고 있는데,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선택하는 관계로 보았다. 선택하는 요소를 연어핵이라 하고 선택되는 요소를 연어변이라 하여 연어 유형을 나누고 있다.

5) 이 외, 신중진(1998)에서는 용언을 연어핵으로 보고 의성어, 의태어를 용언의 변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는 다시 선행하는 체언의 핵이 된다고 보아 의성어, 의태어는 내부 논항과 외부 논항을 동시에 취한다고 보았다.

2.2. 어휘 연상 실험(Word Association Test) 방법⁶⁾

어휘 연상 실험은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이며 심리학적 행동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이용되었는데, 심리언어학자들은 어휘 연상 실험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 관계를 통해 의미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신재윤, 2012, p. 21).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 제2언어 습득 연구와 관련하여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간의 연상 반응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연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어휘 연상 실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단답형(single response format)과 다답형(continuous response format), 선택형(multi-choice format)이 있다. 단답형은 하나의 자극어에 대해 하나의 연상어, 즉 반응어를 쓰도록 하는 것이다. 다답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의 자극어에 대해 제한된 시간 안에 연상어의 개수 제한 없이 쓰거나 하나의 자극어에 대해 연상어 3개로 제한하여 쓰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 선택형은 Read(1993)에서 제한하고 있는 다지선다형 어휘 연상 방법으로 제시어와 함께 연상할 수 있는 다른 어휘들을 함께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상 실험의 결과를 분석할 때는 다음과 같이 연상의 종류에 따라 음운적 연상(clang association), 결합적 연상(syntagmatic association), 계열적 연상(paradigmatic association)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6) 질적으로 연상 내용을 살펴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선행 연구들의 실험 방법론 측면을 살펴보자 한다.

<표 1> 연상 범주(Schmitt, 2010, pp. 60-61)

연상 종류	설명	예
음운적 연상 (clang association)	자극어의 음운적 특징과 비슷한 어휘를 연상하는 것	reflect - effect
결합적 연상 (syntagmatic association)	자극어와 연상한 반응어가 언어적 관계를 가지는 것. 반응어가 자극어의 앞이나 뒤에 놓여 연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문법적인 연속 구조를 형성하는 것	black - magic eat - food walk - slowly
계열적 연상 (paradigmatic association)	자극어와 반응어가 등위 관계나 상하위 관계이거나 혹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 등의 수직적 관계를 나타냄	blossom - flower deep - shadow table - furniture

그런데 Read(1993, pp. 358-359)에 의하면 단답형이나 다답형과 같이 열린 형태 연상(free word association)은 특이한 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L2 학습자의 경우 제한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Meara(1983, p. 30)와 Fitzpatrick(2006, pp. 125-127), Wolter(2001, pp. 51-52)도 열린 형태의 연상의 경우 피험자들의 답을 음운적 연상, 결합적 연상, 계열적 연상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으며, 해석이 곤란함을 지적하였다. Read(1993, p. 359, 2000, pp. 180-181)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택형 연상(multiple-choice WAT)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dit] arithmetic film pole publishing
 revise risk surface text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어휘 연상어 실험은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박선옥(2008)에서는 한국인 200명과 중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단답형 어휘 연상 실험을 실시하여 연상 의미망을 정리하고 연상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어 박정은(2009)에서 자극어에 대한 반의어를 하나 적게 하는 어휘 연상 실험을 통해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 간의 반의어 연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박정은(2009)는 이를 상보반의어, 정도반의어,

관계반의어, 등위관계 연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김메리(2010)은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답형 어휘 연상 실험을 실시하고, 연어에 초점을 두고 초급 학습자들이 모국어 화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어휘 간의 결합을 이해하고 사용하는가를 분석하였다.

김은혜(2012)에서는 학부 과정의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연상 실험을 실시하였다. 김은혜(2012)는 품사를 달리한 50개의 어휘를 선정하여 각각의 자극어에 대해 하나의 반응어를 쓰는 단답형 연상 실험을 실시하고 한국인의 결과와 학습자의 결과를 다각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에서 '고급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의 참여 관찰을 통해 학습자의 어휘 수준과 연상을 활용한 어휘 조직 능력을 살펴보는 질적 연구도 실시하였다. 김은혜(2012)는 그간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그리 활발히 다뤄지지 않았던 어휘 연상 실험을 통해 모국어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 간의 단어 연상 내용을 양적, 질적 양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것과 빈도별 분석, 자극어 품사별 분석, 연상어 품사별 분석, 연상 요인 유형별 분석 등 매우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연상을 통한 어휘 교육 방안은 논의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기 제약 및 의성어, 의태어가 가지는 묘사력과 현장성을 더한다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의성어, 의태어에 대한 연상 실험이나 연상 교육 연구는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분야 모두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바를 찾기 어려웠다.

3. 실험 개요 및 연구 문제

실험은 두 개의 실험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성어, 의태어 연상 실험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한 비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성어, 의태어 연상 실험이다.

먼저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성어, 의태어 연상 실험은 모국어

화자들이 제시된 의성어, 의태어를 보고 무엇을 연상을 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연상이 확장되는지 등을 보고자 함이다.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비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연상 실험을 실시하여 모국어 화자와 연상이 얼마나 일치하며, 정확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상 실험에 사용될 의성어, 의태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출제 어휘 중 출제 빈도가 높은 어휘와 서울 소재 5개 대학 기관 교재에 제시된 어휘 목록 중 중복되는 의성어, 의태어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둘째, 1음절부터 4음절까지의 어휘와 2음절이 반복되는 형태의 어휘를 고루 선정하였다. 셋째, 신문 기사 제목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준에 부합되는 의성어, 의태어가 쓰인 실제 신문 기사 제목 혹은 한국어능력시험에 출제된 문제의 신문 기사 제목을 사용하였다.

연상 실험에 사용된 연상 실험지는 타당도 확보를 위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10년 이상 교수 경력을 가진 전문가 2인에게 의뢰하여 검증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수정 보완하였다.

3.1.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상 실험

실험 대상자는 모국어 화자의 경우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20명으로 연상 문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다답형 어휘 연상(1-10번)과 장면 연상(11-20번), 그리고 신문 제목 이해(21-30번)로 나뉜다. 어휘 연상은 다답형으로 하나의 자극어에 대해 연상되는 모든 반응어를 적도록 하였다.

[예] * 훌쩍훌쩍 → 콧물, 아이, 울다

<그림 1> 모국어 화자 대상 어휘 연상 실험 문항의 예

장면 연상은 제시어를 보고 연상되는 장면을 적도록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어휘 연상에는 없는 유형이지만 의성어, 의태어가 가지는 묘사력과 현장성이 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어휘만이 아닌 연상되는 장면을 적도록 하였다.

[예]	* 삐끔삐끔 → 1) 연신 담배를 피우는 아저씨 2) 어항 속의 물고기
-----	---

<그림 2> 모국어 화자 대상 장면 연상 실험 문형의 예

마지막으로 신문 제목 이해 유형은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한 실제 신문 제목들을 제시하고 의성어, 의태어를 제거했을 때에도 이를 이해하고 알맞은 의성어, 의태어를 고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제목을 보고 무엇을 연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예] 서울시 청소년 키는 쑥, 체력은 ()	쑥 ()	툭 ()
	푹 ()	뚝 (✓)
⇒ 1) 요즘 애들은 키는 큰데 건강이 안 좋구나. 2) 우리 아들도 동네 산을 못 올라가더니 요즘 애들 다 그런가 보군.		

<그림 3> 모국어 화자 대상 신문 제목 이해 실험 문형의 예

3.2. 비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상 실험

비모국어 화자의 경우 연상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과 더불어 의성어, 의태어를 통한 묘사와 현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수준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비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상 실험은 한국어의 언어적 기초를 갖춘 한국어 관련 전공자들로 하였다. 의성어, 의태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한다면 한국어 구사수준이 고급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정도로 의성어, 의태어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조현용, 1999, p. 272). 하지만 적어도 한국 문학 작품을 다

루거나,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 국문학, 국어교육, 한국어 교육 등을 전공하는 한국어 관련 전공자들은 상징 부사가 발달한 한국어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관련 전공자인 최고급 한국어 학습자들⁷⁾은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의성어, 의태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모국어화자와의 연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자 그 대상을 한국어 관련 전공 석사생들로 하였다. 총 실험 참여자 수는 17명이다.⁸⁾

비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상 실험은 선택형 연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연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선택형 연상 문항을 만들었다.⁹⁾ 제시어와 함께 연상어 6개를 품사와 관계없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상되는 어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¹⁰⁾ 이때, 제시어를 모를 경우에도 제시어가

7) Kruse 외(1987)에서 숙달도가 높은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어휘 연상 실험을 한 결과 비모국어 화자와 모국어 화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Meara(1983)도 높은 숙달도의 학습자들은 어휘 연상에 있어 모국어 화자들과 매우 비슷한 대답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8) <실험 참여자들 정보>

국적: 대만, 미국, 사우디, 중국, 태국, 캄보디아

나이: 20대 16명, 50대 1명

한국어 능력: TOPIK 6급 11명, 5급 3명, 4급 1명, 언어교육원 5급 이수 1명, 독학 1명

9) 이는 Fitzpatrick(2006, pp. 125-127)과 Wolter(2001, pp. 51-52)가 열린 형태의 연상의 경우 범주화하여 분석하기 어렵고, 특이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해석이 곤란함을 지적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Read(1993, p. 359, 2000, pp. 180-181)에 따라 선택형 연상의 실험 문항을 구성하였다.

10) 본 실험에 앞서 실험 대상 어휘 선정과 실험 도구 개발을 위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1차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5명의 고급 학습자들(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간단한 의성어, 의태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매우 기초적인 어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성어, 의태어를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그 표현의 느낌이나 상태, 소리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매우 기초적인 어휘를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연상 실험의 방법인데 의성어, 의태어를 자극어로 제시하고 연상되는 어휘를 품사에 관계없이 말해보도록 하였는데 빨리 연상하지 못 했으며, 연상 실험의 방법을 매우 생소하게 여겼다. 연상이란 것 자체가 학습자들에게는 다소 인지적 부담이 따르는 듯 했고, 연상 실험은 평상시 접해보지 못한 평가 도구로 익숙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자극어에 대한 연상어 쓰기 형태가

의성어, 의태어이므로 제시어를 보고 연상되는 어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상 문형은 자극어와 연상한 반응어가 언어적 관계를 가지거나, 반응어가 자극어의 앞이나 뒤에 놓여 연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문법적인 연속 구조를 형성하는 결합적 연상에 해당한다. 또한, Read(1993)과 같이 제시어에 맞지 않는 연상어도 함께 제시하여 비모국어 화자의 연상의 정확성을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조언에 따라 ‘기타’항목을 아래 두어 제시된 어휘 외에 연상되는 어휘가 있을 경우 적도록 하였다.

줄줄	강	시냇물	
	꽃물	넘치다	
	따라가다	소변(오줌)	

기타: ()

<그림 4> 비모국어화자 어휘 연상 실험 문형의 예

장면 연상 실험 또한 모국어 화자들의 장면 연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어를 보고 연상되는 장면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장면 설명 4개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싱글병글	미소 짓는 모나리자 그림	
	딸이 대학에 합격한 아버지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는 여학생들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남자	

<그림 5> 모국어 화자 대상 장면 연상 실험 문형의 예

신문 기사 제목 이해 실험의 경우 제목을 이해하는지, 알맞은 의성어, 의태어의 선택이 가능한지, 제목을 보고 무엇을 연상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모국어화자와 동일한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때 의성어, 의태어는 위의 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어 능력 시험과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

아닌 선택형 연상어 실험을 실시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되고 있는 어휘로 선정하였고, 실제 신문 기사 제목을 사용하였다.

3.3. 비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비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연상 실험을 한 후 간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학습자 성별, 한국어 능력, 사전 학습 경험 등의 배경 설문과 의성어, 의태어 학습 경험, 그에 대한 생각, 어려움 등을 묻는 내용의 간단한 설문이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¹¹⁾

4.1.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상 실험 결과

1) 열린형 어휘 연상 문제 결과

모국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상 실험 결과 제시어를 보고 연상되는

11) 연상 실험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최근 연구로 Fitzpatrick and Munby(2014)는 본 연구와 같이 모국어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의 연상은 다르며, 숙달도가 높을수록 모국어 화자의 연상과 비슷해진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나 이들 연구에서는 Kruse 외(1987)의 실패의 원인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그 평가 기준을 수정하여 어휘 연상 테스트의 제2언어 숙달도 평가 도구로서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Fitzpatrick and Munby(2014)은 일본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어휘 연상 실험을 실시하고, Kruse 외(1987) 기준에 의한 점수, 자신들 기준에 의한 점수 그리고 cloze test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들 점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어휘 연상 실험을 제2언어 숙달도 평가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일반화 가능성 혹은 객관적 평가 도구로서의 확인이 아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에 대한 연상 내용을 질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실험 대상자의 수가 결과를 일반화할 만큼 충분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 결과 분석에서 기준에 의한 점수화나 기술통계에 의한 분석은 제외하기로 한다.

어휘를 모두 적게 한 어휘 연상 문제에 대해 다음의 <표 2>와 같은 어휘들을 연상했다. 이 중 기울이기로 표시된 어휘들은 10명 이상이 동일하게 연상한 어휘들이다.

각각의 제시어에 대한 연상어를 살펴보면, 먼저 ‘졸졸’에 대해서는 ‘시냇물, 흐르다, 따라다니다, 따라가다, 아이들, 아기 오줌’ 등의 어휘를 연상하였다. 그런데 ‘시냇물’의 경우 모국어 화자 20명 전원이 연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다’는 표현이 어려서 배운 동요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시냇물이 흐르다.’ ‘아이들이 따라다니다/따라가다.’와 같이 ‘졸졸’을 중심으로 주술 관계에 있는 어휘들을 주로 연상하였다.

‘핑핑’에 대해서는 크게 ‘눈(雪)’과 ‘눈물’을 연상하였는데 ‘눈(雪), 올다, 눈물, 내리다’의 어휘를 주로 연상하였고, ‘돈, 쓰다, 폭죽, 터지다’의 어휘도 여러 번 관찰되었다.

‘활활’을 보고는 ‘불, 타오르다’를 연상한 사람이 1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 외에도 ‘열정, 캠프파이어, 화, 분노’ 등의 어휘를 연상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열정’에서 ‘의지’로 ‘불, 타오르다’에서 ‘태양’과 연소한 후의 흔적인 ‘장작더미, 벧 집단, 잿가루’ 등으로 연상이 확장되고 있었다.

‘똑똑’에 대해서는 ‘두드리다, 문, 노크(knock)’나 ‘물방울, 빗방울, 떨어지다’와 같은 어휘를 주로 연상하였다. 그런데 ‘두드리다’와 관련하여서는 ‘화장실, 예의, 수박, 택배, 교무실’의 범위까지 연상이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똑똑하다’의 의미로 ‘머리가 좋다, 과탑, 커리어우먼’ 등을 연상하였다. 그러나 ‘안녕’의 경우는 실험자의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연상으로 생각된다.

‘스르르’에 대해서는 즐린 상태(잠들다, 졸다, 눈(目), 감기다, 밤, 아기, 자장가), 차가운 것이 녹는 상태(아이스크림, 녹다), 옆으로 밀어 여는 문

(미달이문, 닫히다), 소리 없이 와해되는 상태(무너지다, 스며들다, 흘러내리다, 떨어지다, 사라지다) 등과 관련한 어휘들을 연상하여 ‘스르르’에 대해 다양한 어휘를 연상함을 알 수 있었다.

‘우르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상황에 대한 어휘를 연상하고 있었는데, 뭔가가 쏟아지고 무너지는 상황(쏟아지다, 무너지다, 떨어지다, 짐, 부실공사, 돌무더기, 사고, 산사태), 여러 사람이 무리지어 다니는 상황(몰려들다, 몰려다니다, 아이들, 단체, 떼거지, 사람, 대중, 관중, 점심시간), 천둥 번개가 치는 상황(번개, 천둥)에 관한 어휘들을 연상하였다. 이때 뭔가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산사태’를 여러 사람이 무리지어 다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으로 연상이 확장되고 있었다.

<표 2> 모국어화자의 어휘 연상 실험

졸졸	평평	활활	똑똑	스르르	우르르	주렁주렁	부글부글	살랑살랑	두근두근
시냇물	눈	불	두드러다	잠들다	천둥	열매	끓다	바람, 봄바람	사랑, 첫사랑
흐르다	울다	타오르다	문	졸다	번개	매달리다	화남, 화	꼬리	설렘
따라다니다	눈물	열정	노크	감기다	쏟아지다	열리다	찌개	흔들다	심장, 가슴
따라가다	내리다	캠프파이어	떨어지다	눅다	무너지다	감	거품	여우	마음
아기 오줌	돈	화가 나다	물방울	눈	몰려들다	과일	뱃속	꼬리를 치다	긴장감
아이들	쓰다	분노	빗방울	문소리	몰려다니다	풍족함	물	눈웃음	뛰다
물이 새다	폭죽	연기	화장실	열리다	아이들	많음	복통	치마	좋아하다
흘러간다	터지다	타다	머리가 좋다	미달이문	단체	포도	뜨거움	불다	떨리다
봄눈	샘	짚가루	예의	문이 닫히다	떼거지	장신구	라면	계집애	두려움
봄	우물	시험지	택배	떨어진다	사람	추석	인내	강아지	예쁘다
	불꽃놀이	피어나다	과답	흘러내리다	모이다	가을	타오르다	끼	여자
	오줌 싼 이불	장작더미	안녕	약하다	사고	귀고리	냄비	강아지	아기
	젖었다	벧 집단	커리어우먼	문워크	대중	목걸이	화산	나뭇가지	연애
	과소비	태양	수박	뺨	관중	땀하다	열	코스모스	맥박
	겨울	화재	교무실	아이스크림	점심시간	나무	마음	가녀리다	걱정
	슬픔	사고		사라지다	떨어지다	박	주전자	꽃	분홍색
		의지		무너지다	짐	선물	칼국수	갈겨럽다	고기
				자장가	부실공사	매달다		트로트	아기
				아기	돌무더기	항금사과		마음	심쿵
				밤	사고	몽치다			흥분
				스며들다	산사태	넉넉하다			
					다수				

이처럼 ‘스르르’와 ‘우르르’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연상하고 있었고, 다양하게 연상이 확장되고 있어 10명 이상이 동일하게 연상하고 있는 어휘는 없었다. ‘스르르’에 대해서 8명이 ‘잠들다’를 ‘우르르’에 대해서는 7명이 ‘천둥’을 5명이 ‘번개’를 연상하였다.

‘주렁주렁’에 대해서는 ‘열매, 매달리다, 열리다’를 주로 연상하였고, 열매에 대해서 ‘감, 과일, 포도, 박’을 연상하였고, ‘가을, 풍족함, 많음, 추석, 넉넉하다’로 연상이 확장되고 있었다. 또한 ‘장신구, 귀고리, 목걸이, 선물, 매달다’와 같이 장신구를 달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였다.

‘부글부글’에 대해서는 ‘끓다, 화남/화’를 가장 많이 연상하였는데, ‘끓다’와 관련하여 ‘찌개, 거품, 뜨거움, 라면, 냄비, 주전자, 칼국수’를 연상하였고, ‘화남/화’에 대해서는 ‘인내, 마음’을 연상하였다. 그리고 ‘뻗속, 복통’과 같이 속이 안 좋다는 의미로도 연상이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살랑살랑’에 대해서는 ‘봄바람/바람’과 ‘꼬리’를 주로 연상하였는데 ‘바람’에 대해서는 ‘불다, 나뭇가지, 치마, 코스모스, 가녀리다, 꽃, 간지럽다’등으로 연상이 확장되고 있었다. ‘꼬리’에 대해서는 ‘흔들다, 여우, 강아지’를 연상했는데, 여기에서 ‘꼬리를 치다’로 연상이 확장되면서 ‘눈웃음, 계집애, 끼’로까지 연상이 확장되고 있었다.

‘두근두근’은 ‘첫사랑/사랑, 설렘, 심장/가슴, 마음’을 연상하였고, 이와 연장선상에서 ‘뛰다, 좋아하다’를 연상하였고, 이어 ‘떨리다, 긴장감, 두려움’으로 연상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장면 연상 문제 결과

다음 제시어에 대해 연상되는 모습을 자유롭게 쓰도록 한 문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들어간 상황과 모습에 대해 연상하고 있었다.

<표 3> 모국어화자의 연상 장면 실험 결과

제시어	연상 장면
싱글벙글	기분이 좋다, 아이
터벅터벅	시험에 떨어지다, 힘이 없다, 가장(家長), 아저씨,
또박또박	글씨, 잘 쓰다, 초등학생, 읽다, 말하다, 바르다
다닥다닥	붙어 있다, 아이들(사람들), 집, 아파트
성큼성큼	힘차다, 다리가 길다, 남자, 화가 난 선생님, 다가오다, 청년
모락모락	김, 호빵, 밥, 연기
갈팡질팡	모르다, 결정하다, 길을 잃다, 헤매다
주룩주룩	굵은 비, 장대비, 창, 내리다, 눈물, 흘리다
허둥지둥	지각, 늦다, 정신없다, 급하다, 서두르다, 등교/학교
차곡차곡	책, 빨래, 쌓다, 정리

3) 신문 기사 제목 이해 문제

마지막으로 신문 기사 제목에 알맞은 의성어, 의태어를 고르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은 음운적, 형태적으로 유사한 의성어, 의태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다. 또한 신문 기사 제목을 보고 드는 생각을 적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목만으로도 신문 기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와 관련한 내용 혹은 후속 조치에 대해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4.2. 비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상 실험 결과

1) 선택형 어휘 연상 문제 결과

비모국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제시어를 보고 6개의 연상어 중 연상되는 어휘를 모두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으로 연상하였는데,

올바른 연상어는 볼드체와 기울이기로 실험 참여자 중 한 명도 연상어로 선택하지 않은 어휘들은 *로 따로 표시하였다.

<표 4> 비모국어화자의 어휘 연상 실험 결과

제시어	연상어
줄줄	시냇물 > 콧물 > 소변 > 강, 넘치다 > 따라가다
핑핑	눈물 > 함박눈 > 돈 > 과소비 *여름, 뜨겁다
활활	타오르다 , 날다 > 화/분노 > 캠프파이어 > 열정 , 새
똑똑	문 > 두드리다 > 떨어지다 > 화장실 > 찌르다 > 장마
스르르	눅다 > 바람 > 열리다 , 잠들다 * 감기다
우르르	아이들 > 천둥 , 쏟아지다 , 몰려다니다 , 아기 > 흘러내리다
주렁주렁	달리다 > 목걸이 , 눈물 > 올다 > 반지 > 감
부글부글	끓다 , 찌개 > 화나다 > 프라이팬, 풍선껌 > 배탈
살랑살랑	바람 > 겨울 > 흔들다 > 꼬리 > 코스모스 *느리다
두근두근	첫사랑 , 설렘 > 가슴 > 면접시험 *실망, 떨어지다

‘줄줄’은 비모국어 화자 17명 중 12명이 ‘시냇물’을 연상하였고, 7명이 ‘콧물’을 연상하였다. 학습자들도 모국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시냇물’을 가장 많이 연상하기는 했지만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다.’와 혼동하여 ‘콧물’을 연상하고 있었다. 모국어 화자들이 ‘시냇물, 흐르다’ 다음으로 많이 연상한 것이 ‘따라다니다, 따라가다’인 반면 비모국어 화자들은 단 한 명만이 ‘따라가다’를 연상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강, 넘치다’의 어휘를 연상한 경우가 ‘따라다니다’를 연상한 경우보다 많았는데, 이는 ‘줄줄’이 ‘흐르다’와 공기 관계에 있고 ‘강’또한 ‘흐르다’와 공기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넘치다’의 경우는 가득 차서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밀려난다는 의미인데 뭔가 가는 물줄기가 잇따라 부드럽게 흐른다는 의미의 ‘줄줄’이 액체와 연관되기 때문에 ‘넘치다’로까지 연상이 잘못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핑핑’의 경우 ‘눈물’과 ‘함박눈’을 가장 많이 연상하였고 이어 ‘돈, 과 소비’를 연상어로 꼽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관련 없는 ‘여름, 뜨겁다’의 연상어는 선택하지 않고 있어 실험 참여자들이 ‘핑핑’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 교재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돈, 물)을 pingping 쓰다.’, ‘눈이 pingping 내리다.’, ‘pingping 울다’와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활활’에 대해서 비모국어화자들은 ‘타오르다’와 ‘날다’를 가장 많이 연상되는 어휘로 선택했다. ‘날다’의 경우 ‘활활’과 혼동하여 선택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가장 덜 선택한 어휘가 ‘새’임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다. 그런데 모국어 화자들이 ‘활활’에 대해 ‘불’ 이외에도 ‘열정’으로 연상이 확장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모국어 화자들의 경우에도 ‘활활’을 통해 ‘열정’까지 연상을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똑똑’에 대해서는 ‘문, 두드리다’를 가장 많이 연상하였고, 더 나아가 ‘화장실’까지 연상이 확장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관계없는 ‘찌르다, 장마’등을 연상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기타 응답으로는 ‘눈물’이 있었다.

‘스르르’의 경우 ‘눅다, 바람’을 가장 많이 연상하였고, 이어 ‘열리다, 잠들다’도 연상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눅다’와 반대되는 ‘열다’도 연상어로 선택한 경우가 있었다. 반면, 모국어 화자들이 ‘스르르 잠들다’와 ‘스르르 눈이 감기다’를 많이 연상한 것에 비해 비모국어 화자들은 단 한 명도 ‘감기다’를 선택하지 않아 ‘스르르’를 통해 ‘눈이 감기다’를 연상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해당 어휘를 모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전원이 모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 외에 많이 선택한 어휘 중 하나가 ‘바람’이었는데, 이는 ‘스르르’의 어감 때문에 부드럽게 부는 바람을 연상한 것으로 보인다.

‘우르르’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가장 많이 연상어로 꼽았고, 이어 ‘물

려다니다, 쏟아지다, 천둥'을 연상어로 선택하였다. 그런데 이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아기, 흘러내리다'도 선택하였고, 기타 응답으로 '자동차'를 적은 것으로 보아 참여자들이 '우르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렁주렁'에 대해서는 '달리다, 눈물, 목걸이'를 주로 연상하였고, 이 '울다'를 연상어로 선택하였는데 '눈물'과 '울다'의 경우 '그렁그렁'과 혼동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목걸이나 귀고리처럼 신체에 거는 장신구의 경우 '주렁주렁'과 쓰이는데 비모국어 화자들의 경우 '반지'도 연상어로 선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국어 화자들은 '열매'를 가장 많이 연상하고, 이와 관련하여 열매의 종류들로 '감, 포도, 박'등을 연상하였고 여기에서 확장하여 '가을, 추석, 풍족함'등을 연상한 것에 비해 비모국어 화자들의 경우에는 '감'을 가장 적게 연상하였다.

'부글부글'에 대해서 대부분 '찌개, 끓다'를 연상하였고, 이어 '화나다'를 연상하고 있어 '부글부글'의 주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모국어 화자들이 '복통, 뱃속'을 연상하고 있음에 비해 비모국어 화자가 연상어 '배탈'을 선택한 경우는 단 한 경우 밖에는 없었고, '풍선껌, 프라이팬'과 같은 관계없는 어휘를 선택한 경우가 있었다.

'살랑살랑'에 대해 비모국어 화자들은 '바람'을 가장 많이 연상어로 선택하여 '살랑살랑'이 바람과 관계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어 실험 참여자의 반이 '겨울'을 선택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살랑살랑'의 의미가 바람이 가볍게 부는 모양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꼬리, 흔들다'를 연상어로 선택하고는 있지만 '코스모스'를 선택한 경우는 한 명밖에 없었다.

'두근두근'의 연상어로 '설렘, 첫사랑, 가슴'을 꼽고 있으며, 이어 '면접시험'을 꼽아 참여자들이 '두근두근'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장면 연상 문제 결과

제시어를 보고 연상되는 장면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5> 비모국어화자의 연상 장면 실험 결과

연상어	연상 장면	명
싱글벙글	미소 짓는 모나리자 그림	3
	딸이 대학에 합격한 아버지	2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는 여학생들	11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남자	1
터덜터덜	눈길에 조심히 걷는 여자	3
	술에 취해 걷는 젊은이	4
	힘없이 걸어가는 아저씨	8
	씩씩하게 걸어가는 군인	2
또박또박	부엌에서 칼로 무를 썰는 어머니	2
	예쁜 글씨로 정성껏 손으로 쓴 편지	8
	구두를 신고 걸어가는 아가씨	5
	자신 없이 작은 소리로 말하는 아이	2
다닥다닥	책상에 쌓아 놓은 책들	2
	부엌에서 요리하는 사람	10
	영화관에 붙은 대형 포스터	0
	좁은 공간에 붙어 앉아 있는 아이들	4
성큼성큼	선생님을 따라가는 아이	1
	웃으며 걸어가는 여학생들	3
	결혼식장에서 입장하는 신랑	11
	한복을 입고 오시는 할아버지	2
모락모락	차가운 팥빙수	6
	김이 나는 햅쌀 밥	3
	부드럽게 잘 익은 홍시	3
	해가 갈수록 키가 크는 중학생	5
갈팡질팡	하늘에 아름답게 터지는 불꽃놀이	1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좋다는 남자	5
	동창 모임에 간다가 했다가 갑자기 안 가겠다는 여자 친구	6
	갑자기 들려온 총 소리에 어찌할 바를 몰라 정신없는 사람들	5

주룩주룩	물이 새는 수도꼭지	4
	눈이 조용히 내리는 마을	1
	창가에 부딪쳐 흐르는 굵은 빗줄기	8
	감기에 걸려 콧물을 많이 흘리는 아이	4
허둥지둥	오리가 걸어가는 모습	3
	과속을 하며 운전하는 남자	4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는 꼬마	5
	늦잠을 자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출근하는 신입사원	5
차곡차곡	잘 접어서 쌓아 놓은 옷	4
	가지런히 책이 꽂혀 있는 책장	2
	떨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하는 면접생	6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일을 처리하는 회사원	5

결과를 종합해 보면 참여자의 과반 수 이상이 정확하게 제시어에 대한 연상되는 장면을 선택한 경우는 ‘성큼성큼’ 하나였고, ‘터덜터덜, 또박또박, 주룩주룩, 허둥지둥’의 경우에는 다수가 정확한 연상 장면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과반이 다른 답을 선택하였다. ‘터덜터덜’을 보고 반 이상의 참여자가 술을 취해 걷는 젊은이나 눈길을 조심히 걷는 여자, 혹은 반대되는 상황의 씩씩하게 걸어가는 군인을 연상했다. ‘또박또박’에 대해서는 오답 중 구두를 신고 걸어가는 아가씨를 가장 많이 선택했는데, 이는 예비 조사에서도 관찰된 것으로 어감 상 구두 굽 소리와 비슷한 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룩주룩’에 대해 연상되는 장면으로 물이 새는 수도꼭지와 감기에 걸려 콧물을 많이 흘리는 아이를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액체가 흐르거나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의 어감과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둥지둥’에 대해서는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는 꼬마나 오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선택한 경우와 과속을 하며 급하게 운전하는 남자, 늦잠을 자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출근하는 신입사원을 선택한 경우로 나누어 해석해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허둥지둥’의 어감 때문에 뒤뚱거리는 모습이나 엉덩이를 흔드는 모습을 연상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허둥

지둥'의 의미를 알고는 있으나 속도는 빠르지만 앞서서 운전하는 정적인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싱글벙글, 갈팡질팡’의 경우는 참여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대해 의미와 제시어가 묘사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싱글벙글’이 웃음에 관한 표현인 줄은 알지만 소리를 내어 웃는 모습인지 소리 없이 조용히 웃음을 띠는 모습인지, 입을 다물고 웃는 모습인지, 열고 웃는 모습인지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갈팡질팡’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변심하는 상황과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닥다닥, 모락모락, 차곡차곡’의 경우에는 참여자들이 제시어의 어감이나 비슷한 어휘 때문에 혼동하여 잘못된 연상 장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닥다닥’에 대해서는 부엌에서 요리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는데 이는 요리할 때 나는 소리와 어감이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모락모락’의 경우에는 ‘무럭무럭’과 혼동하여 해가 갈수록 키가 크는 중학생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모락모락’을 보고 차가운 팔빙수를 가장 많이 연상되는 장면으로 선택했다는 것인데, 이는 ‘모락모락’을 차가운 얼음 조각을 씹을 때 나는 의성어로 생각했거나 차가운 얼음 때문에 생기는 서리를 연상했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차곡차곡’에 대해서는 과반이 떨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하는 면접생과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일을 처리하는 회사원을 연상하였는데 이는 ‘차곡차곡’이 ‘차분하다’와 비슷한 어감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신문 기사 제목 이해 문제

비모국어 화자들은 신문 기사 제목에 나타난 음운적, 형태적으로 유사한 의성어, 의태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 했다. 그러나 신문 기사 제목

을 보고 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쓰게 한 결과 신문 기사의 제목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했고, 기사 내용도 추측하고 있었다.

<표 6> 비모국어화자의 신문 기사 제목 이해 실험 결과

신문 기사 제목	의성어, 의태어 (명)	
88세에도 (), 비결은 손해 보고 살기	팡팡 (4)	평평 (4)
	팔팔 (5)	펼펼 (4)
불황에도 포도주 소비 (), 불붙은 판매 경쟁	깡충 (4)	통통 (7)
	깡충 (1)	홀쩍 (5)
꿈도 지식도 () 그런 만화는 없을까	쓱쓱 (5)	쓱쓱 (7)
	똑똑 (2)	똑똑 (2)
영어배우기 귀에 () 입에 착착 감기네	쓱쓱 (2)	쓱쓱 (9)
	똑똑 (2)	똑똑 (4)
통신업체,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 ()	펼펼 (2)	휘휘 (4)
	확확 (7)	후끈 (4)
김우빈, 응원해준 팬들에게 () 팬서비스	활활 (2)	흠뻑 (3)
	화끈 (7)	활짝 (5)
낮에는 화창, 밤부터 곳에 따라 빗방울 ()	똑똑 (11)	통통 (0)
	줄줄 (5)	솔솔 (1)
도시공사 법인카드 ()	흔들흔들 (4)	홍청망청 (7)
	아슬아슬 (5)	아둥바둥 (1)
붉게 물든 지리산, () 오색물결 단풍 절정	울룩불룩 (2)	새록새록 (0)
	발쭉발쭉 (3)	알록달록 (12)
() 코스피, 2010선 안착	듬성듬성 (5)	꿈틀꿈틀 (3)
	갈팡질팡 (2)	올망졸망 (6)

‘똑똑’과 ‘알록달록’의 경우에만 과반의 참여자들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다른 어휘들은 응답이 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쓱쓱’과 ‘쓱쓱’의 경우에는 응답이 거의 반반으로 갈리고 있었는데 ‘영어배우기 귀에 (), 입에 착착 감기네’에서 ‘쓱쓱’과 ‘똑똑’을 주로 선택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느낌이나 정보나 지식을 얻는다는 의미로 ‘쓱쓱’이 쓰임을 이해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팔팔, 후끈’의 경우에는 어감이 비슷한 다른 어휘들로 응답이 분산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의 의미는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성어, 의태어 없이도 신문 기사 제목을 추측하는 것은 가능하나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렇게 어휘의 명확한 의미를 모르고 기사 제목을 추측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관찰되었는데, ‘김우빈, 응원해준 팬들에게 () 팬서비스’에 알맞은 어휘로 ‘화끈’ 다음으로 ‘활짝’을 선택하고 기사 제목을 보고 웃으며 팬들을 만나는 김우빈의 모습을 연상하였다. 또한 ‘영어배우기 귀에 (), 입에 착착 감기네’라는 기사 제목에 다수가 ‘똑똑’을 선택하여 ‘귀’라는 어휘나 ‘이해’라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영어를 배우는 것과 관련하여 똑똑하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3. 비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17명의 실험 참여자들에게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어떻게 한국어를 학습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12명은 본국 혹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였고, 3명은 한국의 대학 부설 언어교육기관에서, 한 명은 본국의 사설 언어교육기관에서, 한 명은 독학으로 한국어를 학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13명은 의성어, 의태어를 배우는 시간이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3명만이 따로 의성어, 의태어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를 4-6급에서 여러 회에 걸쳐 배웠는데 2명은 교과서만 가지고 학습했다고 응답했고, 한 명은 교재 및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로 학습하였다고 응답했으며 10-20개 정도의 어휘를 학습하였다고 응답했다.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다고 응답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한국어 자막으로 한국어를 학습하였다고 응답했다.

17명 중 12명¹²⁾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의성어, 의태어를 몰라 어려웠

던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 만화, 동화책, 소설, 문학작품, 신문 기사를 읽을 때
- 한국인의 감정이나 느낌을 이해하기 어려웠음
- 말하다가, TV를 보다가 중간에 사전을 찾기도 함
-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을 볼 때 - 평소 한국인이랑 이야기 할 때
- 감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 정확한 이해가 어려웠음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한자어 보다 의성어, 의태어가 어렵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말할 때는 별로 안 쓴다.’, ‘한국어 교육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감으로 의미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에 대한 연상 내용을 살펴보았다. 의성어, 의태어의 공기관계 제약 및 묘사력, 현장성을 높이는 특징으로 인해 모국어 화자들이 의성어, 의태어를 접했을 때 연상되는 내용에 공통점이 있을 것인데, 비모국어 화자들도 모국어 화자와 같이 연상을 하는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를 어휘 연상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모국어 화자들이 의성어, 의태어를 보고 어떤 어휘와 장면을 연상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국어 화자들은 제시어와 주술 관계에 있는 어휘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의미와 관련이 있는 어휘나 제시어가 적용되는 그 이후 상황과 관련된 어휘까지, 즉 결합적 연상에서 계열적 연상으로 연상이 확장됨을 확인하였다. 반면, 비모국어 화자들은 제시된 6개의 연상어 중 주로 제시어와 주술 관계에 있는 어휘들을 선택하였는데, 정 반

12) 무응답 3명, ‘없다’ 2명

대가 되는 의미의 어휘를 선택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어휘를 선택하는 반면 모국어 화자들이 연상한 어휘를 한 명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관계없는 어휘를 선택한 이유로는 제시어와 어감이 비슷한 어휘와 혼동한 것으로 모국어 화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음운적 연상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제시어의 사용 상황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쓰임과 의미 차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모국어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 모두 제시어와 주술 관계에 있는 어휘를 주로 연상하기는 했지만 모국어 화자의 경우 연상이 좀 더 추상적인 단계로까지 확장되는 반면 비모국어 화자들은 제시어의 의미나 사용 상황을 정확히 몰라 제시어를 보고 관련 어휘나 상황을 연상하는데 한계가 나타났다.

신문 기사 제목에 쓰이는 음운적, 형태적으로 유사한 의성어, 의태어 이해에 있어서 모국어 화자들은 알맞은 어휘뿐만 아니라 기사의 제목만 보고도 기사 내용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했던 반면 비모국어 화자들은 기사 제목을 추측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했으나 기사 제목에 알맞은 어휘를 선택하지 못했다. 즉, 의성어, 의태어의 이해 없이 기사 제목이나 내용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잘못 추측하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험 후 비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서도 참여자들이 의성어, 의태어를 어려워하고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학습 과정 중 의성어, 의태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감으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 연상 실험을 통해서도 비모국어 화자가 제시된 의성어, 의태어를 보고 그 의미를 추측하기는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의성어, 의태어 연상 실험을 시도했다는 것과 이를 모국어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음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지면 시험

을 통해 의성어, 의태어 이해를 평가한다고 해도 얼마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감에서 오는 작은 차이까지 이해했는지는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본 연구를 통해 비모국어 화자들이 의성어, 의태어의 의미와 사용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상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 수가 제한적이라 객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실험 후 연상 내용에 대한 인터뷰 단계를 거치지 못해 참여자의 의도에 따른 정확한 해석이 어려웠음이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상을 활용한 의성어, 의태어 교육 방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했으나 교육 방안 제안과 효과 검증은 후속 연구로 남기도록 하겠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의성어, 의태어가 가지는 의미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제고, 더불어 다양한 교수 방법 연구들이 후행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메리(2010).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 연상 패턴과 언어 학습 활동 개발 방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5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쪽~21쪽.
- 김은혜(2012). 연상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의미 교육 연구: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홍범, 박동근(2001). 한국어 상징어 사전 편찬의 실제.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11(2)호,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3쪽~220쪽.
- 김홍범. (1995). 한국어의 상징어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선옥. (2008). 한국인과 중국인의 단어 연상의미 조사 분석과 단어 연상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법. <한국어 의미학>, 25호, 한국어의미학회, 71쪽~98쪽.
- 박영수. (2009). 상징부사의 언어적 공기관계 연구. 대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 (2009).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반의어에 대한 연상 차이 연구. <사회언어학>, 17(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81쪽~108쪽.
- 배현숙. (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교수법 연구. <이중언어학>, 31호, 이중언어학회, 97쪽~121쪽.

- 서상규. (1995). 움직임의 시늉말 취하기 -단어결합의 통계분석. *대동문화연구*, 30, 391-410.
- 손남익. (1998). 국어 상징부사어와 공기어 제약. <한국어 의미학>, 3호, 한국어의미학회, 119쪽~134쪽.
- 신재윤. (2012).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단어 연상 의미 구조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중진. (1998). 현대국어 의성의태어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인숙. (2008). 의성의태어의 공기관계. <어문학회>, 38호, 중앙어문학회, 57쪽~93쪽.
- 우인혜. (1990). 시늉 부사의 구문론적 제약 : 용언과의 어울림 관계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17호,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85쪽~350쪽.
- 윤희원. (1993). 의성어·의태어의 개념과 정의. <새국어생활>, 3(2)호, 국립국어원, 3쪽~15쪽.
- 조창규. (2003). 상징어의 어울림 정보와 활용. <국어교육>, 110호, 한국어교육학회, 149쪽~179쪽.
- 조혜민. (2012). 신문 코퍼스 기반의 상징어 의미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용. (1999). 한국어 어휘의 특징과 어휘교육. <한국어교육>, 10(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65쪽~281쪽.
- 채완. (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Fizpatrick, T. (2007). Word association patterns: Unpacking the assump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7(3), 319-331.
- Fizpatrick, T. and Munby, I. (2014). Knowledge of word associations. In Milton, J. and Fizpatrick, T.(Eds.), *Dimensions of vocabulary knowledge*, UK: Palgrave Macmillan, 92~105.
- Kruse, H., Pankhurst, J. and Sharwood Smith, M. (1987). A Multiple Word Association Prob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9(2), 141-154.
- Meara, P. (1983). Word Associations in a Foreign Language: A Report on the Birkbeck Vocabulary Project, *Nottingham Linguistic Circular*, 11(2), 29-38.
- Read, J. (1993). The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of L2 vocabulary knowledge. *Language Testing*, 10, 355-371.
- Schmitt, N. (2010). *Researching Vocabulary: A vocabulary research manua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Wolter, B. (2001). Comparing the L1 and L2 mental lexicon: A depth of individual work knowledge model.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3, 41-69.

186 이증언어학 제64호(2016)

이지은(Lee Jieun)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전화번호: 02-3277-2106

전자우편: 4udiana@gmail.com

접수일자: 2016년 7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8월 20일

게재확정: 2016년 9월 19일